



기업사랑 범시민 걷기대회 지난 26일 광주 쌍암공원 일대에서 열린 '산업평화기원 및 기업사랑 한마음 범시민 걷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출발에 앞서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종선을 날리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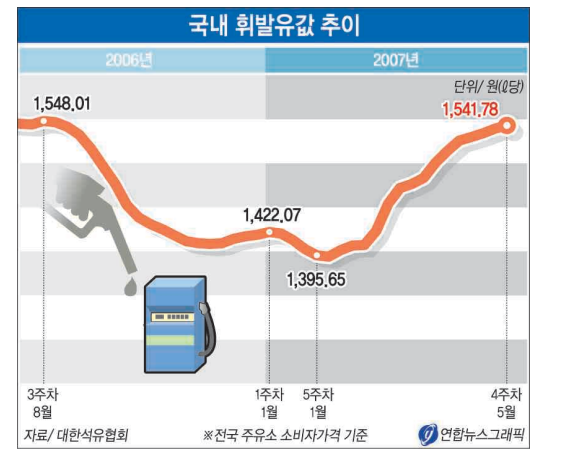
휘발유 사상 최고가 경신 초읽기

15주 상승... ㄹ 당 1541.78원

국제 유가의 오름세로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게다가 서민 생활과 관련이 많은 경유 가격은 7월호 예정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될 수밖에 없어 기름값이 거시경제와 서민경제를 모두 주름지게 할 전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5.21~25)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ㄹ 당 1천541.78원으로 전주보다 3.58원 상승했다.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올해 2월 둘째 주부터 15주 연속 오름세를 타며 사상 최고 가격인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천548.01원에 6.23원 차이로 근접했다.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이 1천611.48원으로 전주에 비해 1.94원 상승하는 등 광주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1천



516.14원)와 제주도(1천569.21원)는 전주보다 각각 0.91원과 2.08원 떨어졌다. 실내용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903.96원으로 0.17원 올랐다.

하지만 보일러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911.67원으로 전주보다 1.01원 내려가 2월 넷째 주 이후 12주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부, 정유사 공장도가 부풀리기 막는다

휘발유 등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회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석유공사가 집계 발표하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지급처별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하지않고 각 정유사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석유제품의 공정거래 확립과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석유제품 가격조사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가 집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석유제품 가격동향 가운데 공장도 가격은 5개 정유사들이 각각 발표하는 주유소 및 대리점 판매가격을 취합해 계산한 것이다.

무연 보통 휘발유의 경우 이 가격은 5월 넷째주(5.21~25) 1ㄹ 당 세전 614.80원, 세후 1천495원으로 전주보다 세전가가 3.64원, 세후가가 4원이 오른 것으로 돼있다.

“외제차 산지 1년이면 반값”

수입 중고차 시세표

신차 값의 44~82%

“출고한지 1년이 지나면 수입차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27일 서울오토캐러리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 '수입 중고차 시세표 가이드북'을 분석한 결과, 2006년식 중고 수입차 가격은 차종에 따라 신차가격의 44~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가이드북에 실린 중고 수입차 가운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8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18종을 대상으로 신차가격과 2006년식 중고차의 중간(B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교대상에 오른 중고 수입차종 신차에 비해 차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차종은 캐딜락 DTS였다. 이 차량의 새차 가격은 9천980만원이지만, 2006년식 모델은 4천400만원으로 신차 값의 44.1%에 불과했다.

자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2006년식 볼보 S80 T6와 2006년식 사브 9-5 에어로의 경우 각각의 가격은 3천900만원, 3천800만원으로, 신차가격의 절반 수준인 48.4%, 50.9%에 그쳤다.

아울러 1년이 지나 새차 가격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모델은 캐딜락 DTS, 사브 9-5 에어로 외에도 7종에 달했다.

링크 타운카 LWB(53.9%), 재규어 XJ 4.2 LWB(56.8%), 인피니티 Q45(57.8%), 렉서스 LS430(58.4%), BMW 760i(58.9%), 아우디 A8 6.0L(59.2%), 폴스바겐 페이론 W12 6.0 LWB(59.8%) 등의 순이었다.

산업계 여름 무더위 ‘비상’

직원 위생·생산 차질 방지

가전·음료업체 특수 대비

올 여름에 사상 최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직원위생과 재해사고 관리 및 생산차질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가전 및 음료·빙과 업체들은 여름철을 맞아 판매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더위 특수에 대비해 마케팅 및 제품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아외에서 활판에 둘러싸여 작업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국내 조신소들은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더위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

내 조선 빅3는 현장 곳곳에 옥외 에어컨 스프쿨러(spot cooler)와 개인용 액셀러(현장용 선풍기), 냉수기, 제빙기 등을 현장 곳곳에 설치, 가동해 근로자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GS건설은 혹서기에 대비해 무리한 옥외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그늘막, 휴게실 등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포스코는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24시간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의사·간호사·산업 위생사로 의료진을 구성해 고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체크를 하고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직원들에게 매일 한차례 빙과류를 지급하며, 기아차 역시 매일 빙과류와 함께 얼음과 냉조리 등을 지급,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과일·화훼·김치 등 농식품 수출 호조

올해 들어 과일과 화훼, 김치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7억2천 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신선농축산물은 11.6% 늘어난 1억6천 400만달러여치가 수출됐고, 면·소스·차 등 가공농식품 수출 역시 5억6천200만달러로 8.7% 증가했다.

과일류의 경우 배와 감귤의 대만 및 러시아 수출

이 각각 70%, 108% 급증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62% 늘었다.

화훼류도 중국시장 수요 회복과 더불어 80% 증가했고, 버섯류도 6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치는 기생충알 파동 여파에서 벗어나 주력시장 일본으로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3% 늘었다.

무리한 부동산정책 → 소비위축 → 경기침체 → 내수부진 → 일본형 장기불황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 ‘경고’

현대경제연, 올 성장률 4.2%→4.5% 상향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급랭해 경제가 내수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는 2001년 말 341조7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582조원에 달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중은 2005년에 64%로 2002년 소비비를 당시 수준을 넘어서 지난해 말 6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은행의 가계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59.1%에서 지난해 말 62.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관련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가계발 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수출 경기 둔화를 상쇄시키면서 연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출경기의 소폭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부진은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축소되고 북한 핵문제의 조기수습 등

으로 당초 전망(4.2%)보다 회복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과 동행성을 갖는 산업생산 증가율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올해 1~4분기를 경기저점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속도가 상반기보다 빠른 상회하의 경기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L자형 경기추세가 진행될 경우 2~4분기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1.4분기 4.0%, 2.4분기 4.3%, 3.4분기 4.7%, 4.4분기 4.9%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자신감과 가계의 소비구매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소비가 증가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4.3%로 올렸다.

연구원은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가 30억달러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

“향후 3년내 상당한 경제위기”

전경련 1,016명 설문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한동안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천1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최근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중 4명 정도는 우리 경제가 향후 3년 이내에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에 처하거나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13%는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64.8%는 ‘IMF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중립’이나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23.9%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77.1%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경직된 노

사관계와 고임금(31.9%), ‘높은 땅값·물류비용 등 고비용 부담’(28.1%), ‘과다한 정부규제’(22.6%)를 들었다.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사문제 요인으로는 ‘강성노동조합의 빈번한 불법 노동운동’(31.5%),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21.9%),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의 어려움’(19.9%)을 꼽았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아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양생명	[TM1위-5월]고객상담원 200명 남/여모집	고졸/경력무관	2800~3000	05/30	02-518-2769
케이엘건설주	캐드자격증 소지자 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31	062-515-0318
☎채널교육광주	2007년 채용선생님 공개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973-1132
☎삼산기공	공사 및 공무원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5/31	062-954-3390
엘이디이텍	영업 관리 및 마케팅 지원 업무 사원 채용	대졸/경력3년	2600~2800	05/31	062-602-7849
☎J&J푸드시스템	물류 배송 및 재고 관리/영업지원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31	062-956-3501
동하코퍼레이션	반도체 부품검사 생산직 사원모집	회사내규	05/31	032-325-4726	
☎신영모텍	생산직 및 사무관리직/경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8	062-944-6886
울전	[신세계 백화점] 의무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8	062-360-1827
나주이천식품농협조합법인	관리부/생산부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06/08	061-337-8511	
☎기성	생산/생산관리/품질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8	062-942-2636
☎성일정보통신	웹기획 및 관리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10	062-350-2610
INBET(인베트)	프로젝트 개발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6/10	062-367-9063
뉴비이오	서울실 생산관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973-6995